



원주시의회

의정소식

“신뢰받는
상생의회”

열린 의회
실천 의회
정책 의회

(우)26384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http://council.wonju.go.kr> TEL 033)737-5023 FAX 033)737-5025



제 36 호

- 발행일 | 2014년 4월 1일
- 발행인 | 원주시의회의장
- 편집 | 의회운영위원회

지면안내

- 02 | 5분 자유발언
- 04 |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 05 | 건의안
- 07 | 5분 자유발언
- 10 | 의회활동
- 15 | 원주시의회 광고
- 16 | 원주시의회 인터넷방송 안내



제16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지난 3월 26일 개최한 제16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3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현 의원, 신흥균 전직 공무원 및 김종대 세무사 등 3명을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등 11건의 의안을 원안의결 하고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수정의결 하였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춘자·김홍열·이병규·곽희운 의원, 제2차 본회의에서는 류인출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와 정책제안을 하였다.

* 이 소식지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박 춘 자 의원

도시재생 !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

경기침체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해 개발수요가 감소하면서 기성 시가지 쇠퇴현상이 주요 도시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재정비 사업 지연에 따른 건축물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공동체 파괴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신도시 건설보다는 노후 도심 활성화를 새로운 도시개발의 화두로 삼고 있으며, 현 정부 또한 도시의 외연 확장보다는 도시재생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신시가지 조성을 지양하고 기존 시가지의 기능재편과 도시환경의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를 재생시키는 정책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우리 지역 역시 구도심의 낙후와 공동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향후 지역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충분히 활용하여 광범위한 국가지원을 이끌어 낼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재생 정책이 창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아울러 ‘연계·융합·합의’를 도시재생의 키워드로 삼을 것을 특별히 제안하는 바임.

김 홍 열 의원

양양-제주 항공노선 개설 취소해야

본 의원은 2013년 3월 제161회 임시회에서 양양-제주 항공노선 개설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내 한 항공사가 다음 달 6일부터 양양공항에서 중국 8개 도시와 제주 등 9개 항공노선을 취항한다고 함.



그동안 원주공항을 살리기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각급 기관에 대해 건의를 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으로 지난해 손실보전 기준인 66.5%를 가까스로 상회하는 70.5%의 탑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강원도가 원주공항은 내팽개친 채 양양공항 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음.

원주공항 개설 초기 탑승객의 22~23%가 영동권 주민으로 조사된 가운데 양양-제주 노선은 제주도를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들만 주로 이용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강원도는 양양-제주 항공노선을 즉시 취소하고 만약 원주공항의 탑승률이 70% 이하로 추락하여 손실보상 사태가 발생하면 강원도가 책임지겠다는 대책부터 제시하기 바람.

이 병 규 의원

우리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적 생활과 밀접한 생활예술인 전통농악은 그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깊숙이 뿌리박혀 마을의 문화를 형성하였음은 물론 더 나아가 한민족의 공동체적 정신문화를 주도한 중요한 전통 문화매체임.



원주 매지농악은 옛 풍물 본래의 소박성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두레 풍물로서 가락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36방이라는 특이한 진법과 색다른 복색으로 영서지방 농악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1994년 매지농악보존회를 창립하여 지역문화 계승과 보존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6년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음.

지역 주민들에 의해 유지되는 전통문화예술 대부분이 시대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그 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지농악을 발전시키기 위한 원주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제라도 매지농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원주시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당부함.

곽 희 운 의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현재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의 도시개발사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태장2구역 외 4개 구역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후 7~8년 이상 사업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준공기간을 포함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으나 불분명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는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하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1/3에 해당하는 토지의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은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부실한 사업추진으로 사유 재산권이 장기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현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에 대해서 이제는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함.

류 인 출 의원

단구동 병설유치원 폐쇄 및 혁신도시 단설유치원 설립 재검토 촉구

독립된 시설에서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단설유치원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병설유치원보다 더 바람직한 교육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교육당국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지만 아무리 의도가 좋은 정책도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임.



공동주택이 밀집하여 교육수요가 많은 단구동은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그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었으나 도교육청의 유치원 운영 방침에 따라 병설유치원이 폐쇄되고 멀리 떨어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혁신도시에 단설유치원이 신설되면 지역의 유치원 학부모와 자녀들은 통학시간 및 교육비 증가라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교육당국에서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다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보다 큰 틀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라며, 단구동 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쇄와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간곡히 촉구함.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2014년도 첫 회기인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월 23일 개최하여 28일까지 6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원안의결하고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유석연 의원이 발의한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장양~홍업)의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안』, 곽희운 의원이 발의한 『지방도 제404호선(문막~운계) 도로 확·포장 추진 건의안』 및 황보경 의원이 발의한 『강원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치 등의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하였으며, 지난해 6월 구성된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류인출)는 주요 활동사항 및 성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병선·박춘자·김홍열·이병규·김명숙 의원,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재섭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장양~홍업)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

원주시의회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에 필요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장양~홍업) 개설계획을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발송하였다.



원주시의회는 유석연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홍업~관설 구간 및 봉산~장양 구간에 이어 동부구간(관설~봉산)이 개통됨에 따라 소초면 장양리에서 홍업까지 11.4km의 서부구간만 개설되면 원주 도심 외곽도로 연계망 구축으로 도로 접근성이 확보되어 도심 교통 지·정체 해소는 물론 원주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분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도로망 확충은 물론, 3도(강원, 경기, 충북)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원주시의 도로 연계망 조기구축을 통해 중부내륙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장양~홍업)의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지방도 제404호선(문막~운계) 도로 확·포장 추진 촉구



원주시의회는 문막읍 포진리에서 귀래면 운계리에 이르는 지방도 제40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원 전체 명의로 채택하여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및 원주시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였다.

곽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서 원주시의원들은 1981년 길이 14.16km 2차선으로 지정된 지방도 제404호선은 이십여 년이 지난 지금 원주시에 있는 7개 지방도 중에서 하루 교통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협소하고 주변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대형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아직 확장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주변 지역에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더 네이처 관광단지 및 루첸 관광단지 등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로 인해 대형 화물트럭을 비롯한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지방도 제404호선의 확·포장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강원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다.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치 등 촉구



원주시의회는 『강원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치 등의 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강원도, 강원도의회 및 원주 출신 김기선·이강후 국회의원에게 발송하였다.

건의안을 발의한 황보경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원주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 및 체계적인 투자유치·지원 등을 위한 필수 조직인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혁신도시가 아닌 강원도청에 설치한 것은 혁신도시의 기능과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도시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 혁신도시의 중심 기구이자 랜드마크인 유치지원센터를 혁신도시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경제발전계정으로 변경하여 건축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강원 원주 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 및 「강원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였다.

5분 자유발언

전 병 선 의원

원주시 교통문화지수는?

건강도시·생명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원주시는 최근 몇 년간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및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전국 교통문화지수 역시 하위권을 맴돌아 ‘안전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었음.



그러나 2013년 국가정책 사업 특별실태조사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안전 종합 진단을 실시하여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원주 지역 공공기관과 방송국 및 관련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바 있음.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원주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음은 물론 교통문화지수 역시 상승하는 성과를 보인 만큼, 앞으로도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으로 원주시가 대한민국 대표 교통문화 선진화 모델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함.

박 춘 자 의원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확정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

그동안 원주시가 추진해온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사업이 각고의 노력 끝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확정된 데 이어 2014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이 완공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지역사회에 대단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됨.



이에 우리는 긍정적 효과와 관련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전철로 인해 무조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앞서 춘천의 예에서 보듯 ‘수도권 빨대 현상’ 등 부작용을 포함한 각종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수도권 인구 유입을 위해 차별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혁신·기업도시 및 건강도시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등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 사업에 따라 원주시 발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함.

김 흥 열 의원

농경지 수해피해 복구 원주시가 지원해야



지난해 7월 흥업면과 문막읍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산사태를 비롯하여 농작물, 농업기반시설 및 가옥이 침수되고 농지가 유실 또는 매몰 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농지의 유실과 매몰 피해 규모는 908농가, 1,909필지 223,456㎡에 이를 정도로 매우 컸음.

그러나 지원체계가 변경되어 농가별 재난지수가 50 이상일 경우에만 복구비를 지원하고 50 미만인 농가에는 아무런 지원 없이 자력으로 복구하도록 하고 있어, 685농가에는 251,480천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반면 223가구 280필지 7,341㎡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이 더욱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마을별로 포클레인 등을 투입하여 모두 복구해준 전례가 있으므로, 이번에도 종전처럼 원주시가 장비를 지원하여 피해농지를 복구하여 주기 바람.

이 병 규 의원

농업 개방화 시대, 농업인의 현명한 선택은?



한·중 FTA 체결 및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중국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 농업이 약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렇다고 미리 절망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현실에 안주하고 남에게 기대면서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농업인은 결국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으며, 고유의 농심과 전통을 견지하되 자기 계발을 도모하여 변화에 대한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농업인만이 마침내 성공할 수 있는 것임.

‘농업 개방화’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농업이 세계 농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 및 차별화된 판매방법 개발로 자신만의 고객층을 형성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야 하며, 일반 제품과 구별되는 고유한 브랜드 구축 및 규모와 범위의 경제 달성으로 비교우위를 점하는 한편 시장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농산물 개발에 반영하는 등 쉽 없이 연구하여 농업인 스스로 강해져야 함.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쉽게 끊지 못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담배는 우리나라 19세 이상 흡연자의 95.6%가 매일 16.7개비를 피우고 있으며, 남성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등 각종 암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또한, 2011년 기준 1조 7천억 원의 진료비가 담배 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어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매우 큰 가운데, 이 금액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걸림돌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문제를 해소하거나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액수에 해당함.

이처럼 흡연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에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2013년 원주시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62개소 9,390,000㎡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집행부의 현황보고에 의하면 480개소는 존치하고 116개소는 일부 변경, 폐지대상은 66개소에 불과함.



정부나 지자체의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로 하자면 원주시는 2020년까지 약 2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으므로, 그동안 소중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해 행복한 생활을 할 권리마저 빼앗긴 채 살고 있는 시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함.

우선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관내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기능별·생활권별로 분류하고 재정상 예산투입이 어려운 시설들을 해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그 순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용지에 대해 보상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2014년 원주시의회 시무식



원주시의회(의장 채병두)는 지난 1월 2일 갑오년 새해를 맞아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모임방에서 2014년 시무식 행사를 가졌다.

채병두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원주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준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올해는 많은 지역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각종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충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시무식 행사에 앞서 충렬사와 현충탑을 찾아 참배한 의원들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2014년 한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였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시의원 직업체험



강 원도교육청과 원주시청소년수련관이 추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석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1월 15일 원주시의회를 방문하여 모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등 시의원 직업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원주시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채 병두 의장을 비롯한 원주시의회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 등에 대한 위문활동을 가졌다.

이번 위문활동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원 전원으로 편성된 각 위문단이 애네아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과 36사단 및 108연대 등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사)원주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을 찾아 '사랑의 연탄' 3,000장을 기탁하였다.

민선5기 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원주시의회 박춘자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에서 주관한 ‘민선5기 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생활정치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제10회 우수조례 선정 장려상 수상



원주시의회 김학수 의원(건설도시위원회)이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발의로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0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개인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월례회의 개최



원주시의회는 지난 2월 19일 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2014년 2월 의정모니터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월례회의에서는 지난 1월 열린 제 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자체 활동 계획 수립과 내부규정 제정 및 회기 운영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종료 후 전체 토의를 통해 결과를 공유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모니터 제도 운용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원주시정 및 의정현안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조성현장 등을 포함한 원주시 관내 주요시설 견학을 건의하였다.

관내 중·고등학생 원주시의회 견학



2014학년도 신학기를 앞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봄방학을 맞아 원주시의회를 견학하였다.

지난 2월 20일 문막중·고등학교 학생 20여 명은 원주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시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비롯하여 시민 개방시설인 작은도서관 및 담소방 등 의회시설을 둘러보며 기초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가졌다.

동원주지역아동센터 원주시의회 견학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들이 2014학년도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원주시의회를 견학하였다.

원주시 봉산동 소재 동원주지역아동센터 학생 및 지도교사 등 20여 명은 지난 2월 27일 원주시의회를 방문하여 1층 모임방에서 의회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시의회와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시민개방시설인 작은도서관과 담소방을 비롯하여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의회시설을 둘러보며 지방자치제도 및 기초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가졌다.

제95주년 삼일절 기념행사 '치악의 종' 타종



지난 3월 1일 치악종각에서 개최된 제95주년 삼일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원주시의회(의장 채병두) 의원들은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정신을 기리며 '치악의 종'을 타종하였다.

제3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 참관



원주시의회는 지난 3월 14일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를 참관하였다.

전시장을 찾은 시의원들은 의료기기분야의 최신기술과 국제시장 동향 등 원주 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전시회에 참가한 원주 지역 의료기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소통하는 의회, 행복한 원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신뢰 의회**
소통으로 시민과 사회가 공감하는 **공감 의회**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지는 **책임 의회**

제6대 후반기 원주시의회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시민의 편에 서서 먼저 생각하며 소통하는 원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Wonju City Council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033)737-5023

<http://council.wonju.go.kr>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

의정활동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원주시의회 인터넷 방송이 운영되고 있다.

의회 본회의에 대하여는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각 상임위원회에 대하여는 녹화방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의정뉴스를 제작 원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wonju.go.kr>)에 게재하여 시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의회 작은도서관 이용안내

- **기간** : 연중 지속 실시
- **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장소** : 시의회청사(1층)
- **열람자료**
 - 의회 회의록
 - 백서, 연감
 - 일반도서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정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의회 방청 및 참관** 원주시의회의 본회의의 진행과정은 모든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 방청을 원하시면

- 개인 : 신분증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에 오셔서 방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체 : 의회를 방문하여 대표자가 방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청인 준수사항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의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면 안됩니다.
- 기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의정소식** 원주시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상세하게 알리는 의회소식지로서 분기별 발행하여 각급 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 **회의록**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 **의정백서** 짝수년도, 2년 주기로 임기동안의 활동사항을 책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